

제1회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후끈'

세계 정상급 총출동...국내서 서봉수·유창혁 등 출전 군민 어울림 한마당 성황...문화·스포츠 마케팅 기대

국내 바둑 진흥을 도모하는 '제1회 1004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막을 몰렸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제1회 1004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는 (재)한국기원이 주최하고 신안군과 전남도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 7일 개막했다.

특히 이번 '제1회 1004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는 첫 대회인 만큼 세계 바둑 스타들의 진검 승부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중국·일본·대만 4개국 16명의 시니어 바둑기사가 참가해 개인전·단체전 경기를 통해 치열한 수담(手談)을 펼치고 있다.

주최국 한국에서는 서봉수, 유창혁, 양재호, 서승욱, 김중수 9인과 김기현 7인 등 6명이 출전했다.

또 일본에서 활동 중인 조치훈 9단이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사표를 던졌고 중국 3명, 일본 3명, 대만 3명 각각 출전중이다.

16강 토너먼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가별로 3명씩 짝을 이뤄 참가하는 단체전도 함께 열린다.

개인전 우승상금은 5,000만원, 단체전 우승 상금은 3,000만원이다.

신안군은 이번 대회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날 갯벌센터 광장에서 '군민 어울림 한마당' 이벤트도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신안 출신 가수 현진우를 비롯 문화유 등 초청가수 공연에 이어 군민, 관광객이 어우러진 노래 자랑 대회도 함께 열렸다.

한편 신안군은 '1004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의 유치를 위해 지난해 한국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첫회 대회



'제1회 1004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신안 증도 열도라도에서 12일까지 열린다. (재)한국기원이 주최하고 신안군과 전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서봉수·유창혁 9인 등 국내외 정상급 기사들이 대거 출전했다. 개막식 기념사진. /신안군 제공

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현장 점검 등 만전을 기해왔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군은 이세돌이라는 불세출의 기사를 배출한 고장으로 그동안 신안천일염 바둑팀을 창단하고 바둑 리그에 참가해 온 바둑의 명가다"며 "세계 무대에 신안군을 알리기 위해 이번 대

회를 유지했으니 바둑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1004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는 신안지역의 문화·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을 세계에 홍보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증도면 열도라도 리조트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신안=이주열기자

완도 기후변화 5대 리스크 대응 박차

고수온·태풍·적조·폭우 등 피해 최소화 논의

완도군은 최근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방안 TF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TF팀은 정석호 완도부군수를 중심으로 국단장 및 관련 부서장,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유병동 팀장,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박세훈 대표, 청산바다환경연구소 김경원 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폭염이 20일(평년 2.5일), 열대야가 28일(평년 8.4일)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 사이 바다 수온은 평년 대비 최고 2~5°C 이상 높은 고수온 현상이 발생해 양식 생물에 큰 위협이 된 바 있다.

고수온 현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태풍, 적조발생, 이상조류, 폭우 등의 발생 빈도 및 규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TF회의에서는 5가지 신규 사업이 도

출됐다.

신규 사업은 ▲양식 품종별 변식주기 재규명을 통한 종묘생산 및 채묘시기 조절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등이며 앞으로 적용 가능성과 사업 효과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청정한 해양생태계 조성 및 유지를 위해 바다목장 및 바다 숲 조성, 해양 폐기물 사전 억제, 적조발생 시 신속대응 체계 등 기존 11개 세부 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변동성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양식 환경 특성조사, 양식장 환경관리 시스템 강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석호 완도부군수는 "기후변화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과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할 것"을 당부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해남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 명칭·프로그램 공모제안 실시

해남군은 9일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 기념품 개발과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 명칭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제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광 기념품은 해남의 특징을 담은 대표상품을 기념품으로 개발해 관광객 등 해남 방문인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해남군 대표축제로 개발중인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의 명칭과 프로그램 공모도 실시한다.

해남군은 하반기에 해남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축제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

공모기간은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군민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남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제안 선정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청·접수하거나, 제안신청서를 작성해 해남군청 기획실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군의 대표적인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육성중인 여름부추가 첫 출하를 시작했다. /해남군 제공

'싱싱한 해남 여름부추' 첫 출하

특화작목 시설부추 경쟁력 강화·생산체계 구축

해남군의 대표적인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육성중인 여름부추가 첫 출하를 시작했다.

해남군은 대표적 특화작목인 시설부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확대를 통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남 여름부추는 15농가에서 3.5ha 면

적을 재배, 200톤을 생산할 예정으로 계약재배를 통해 전량 CJ프레시웨이로 출하될 예정이다.

군은 여름부추 재배를 위해 시설하우스 내 차광시설, 환기팬 등 온도저감 시설을 투입하는 한편 클로렐라를 활용한 고품질 부추 생산 등 여름철 시설 부추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사업으로 올해는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고품질 부추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시설부추는 2007년부터 기후가 온화한 북일면을 중심으로 22농가에서 작목반을 구성, 21ha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 연간 1,100여톤의 겨울부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부추 출하로 1억 9,000여만원의 농가 소득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라이온의 승고한 사랑 담긴 봉사정신 실천"

김철진 제50대 영암라이온스클럽 신입회장

"나눔의 행복으로 함께하는 라이온이 되기위해 라이온의 모토인 위 세브! 우리는 봉사한다! 라는 기치아래 이웃에게 새로운 봉사의 출발을 시작 하였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355-B2지구 영암라이온스클럽 회장에 취임한 김철진(55)회장은 "기회는 역사속에서 여러번 주어지지 않는다. 큰 뜻을 품은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라이온의 승고한 사랑이 담긴 봉사정신을 실천해 후회없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큰 일 보



다는 음식에서 보이지 않는 참된 사랑으로 이웃을 돌 보는데 소홀함이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지방언론인으로 재직중이며 각종 사회활동도 활발히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서 왔으며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선행으로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껍질째 먹는 청포도 '샤인머스켓' 육성

강진, 포도 재배전문가 초빙 재배기술교육

강진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포도재배농가 및 관심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샤인머스켓재배기술교육및 현장견설령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샤인머스켓은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씨가 없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특유의 마스켓 향을 가지고 있어 일명 '망고포도'로 인기몰이중이다.

이번 강의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재배를 전담하고 있는 이영일 지도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지도사는 샤인머스켓 육종기 관리 유의 사항 및 생장조절제 처리 기준 등 재배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 농가

를 방문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전면 최병열 농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초기 묘목 및 토양관리 같은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됐다"며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군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샤인머스켓이 우리군 신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에는 올해까지 2.7ha의 면적에 6농가에 묘목과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여 재배 중에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영암 신북면 농촌 일손돕기

영암군 신북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도움을 주고자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북면은 오는 21일까지 농촌일손돕

기 중점기간으로 설정해 고령농가, 과수 등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중심으로 농촌일손돕기를 희망하는 단체에 연결해 지속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신안 작은학교 살리기 전략 수립

신안교육지원청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지역 학교 교감과 교사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학교 살리기' 전략수립 협의회를 가졌다.

김인선 교육장은 "작지만 강한학교!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작은 학교를 살리는데 교육공동체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이주열기자



목포 취약계층 폭염 피해예방 홍보

목포시는 때이른 폭염 속에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보건소는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12명

이 1대1 가정방문과 안부 전화를 통해 기초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영질환을 사전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